

## 에스겔 2장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에 이 말씀이 잘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100프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들을 때 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에스겔서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인 서론적인 얘길 했습니다.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잡혀 가서 현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지요. 대충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다. 이래선 안 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 이런 뜻 일꺼야 이런 뜻일꺼야 말씀하지 않았습디다.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라고 했지 뭐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았습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 절대 그러지 않았습디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얼마나 떠나있습디니까? 말씀 한 구절 놓고 사람 얘기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은 우리가 꼭 공부하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포로기가 지나고 돌아온 후에는 스가라나 말라기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발 강이라는 것은 지금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이락이 있는 곳이죠. 유프라데스에서 하나의 지류 강인데 바벨론 성읍으로부터 1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기에 인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라는 것은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만 살게 한 거예요. 어느 지역을 못 떠나게 한 거예요. 그게 포로생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관한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회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니들이 바벨론 가면은 거기서 아이도 낳고 받을 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했습니다. 왜냐면 70년이란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마찬 가지예요. 우리도 내일 죽을 지라도 오늘 사과 나무를 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 한 달 또 십년 백년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되지 않죠.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 아 이렇게 말했죠. 요한이 들려 올라갈 때도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침례인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셨을 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시에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서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그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봤습니다. 또 스테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들이 열렸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보라 하늘들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열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받을 때 완전 하늘이 뺨 뚫려가지고 거기서 말씀이 내려 오더라구요. 그게 침례인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구요.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받은게 89년이니까 그리고 제가 2009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방송을 그 말씀을 방송하고 일 년 동안 외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년하고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일 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매주 보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침례인 요한이 한 그 천국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신다.. 너희 메시야가 오신다. 그 분이 예슈아다. 그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죠. 참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때는 두렵고 떨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그 말씀을 하나 하나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요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째 그 달 5일에 그밭 강가 갈데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그에게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딱 닿기만 하면 꼼짝없이 그분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보통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일 년의 하루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일 년을 할 수 있을까? 10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라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혔다. 손 바닥이거던요 손 장 자 거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있다. 이렇게 얘기 하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말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요한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으로 가면 셋째하늘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다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아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루시퍼가 북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루시퍼가 하늘의 보좌에 있었거던요 그래서 14장 12절13절 보면 “ 오! 아침의 아들루시퍼야 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맘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위에 앉으리라” 북편의 회중의 산이죠 그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성도들 회중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12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22절~24절 하늘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까 당연히 교회가 하늘에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가죠 거기서 아마 매일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 있다는 것 시편 75편을 봐도 그 말씀이 나오죠 75편4절~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높이는 것은 동서 남에서 오는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온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죠 사도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때가 다르죠 사람마다 높이는 일이 하늘 보좌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7절 가보니 뭐라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니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시편 50편을 봐도 하나님이 재판장이라 했습니다. 시편50편 시편 50편도 재판하는 장면이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보죠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다. 재판하는 것이죠 심판한다는 것이죠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재판하는 장면이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하죠 광풍이 불고 불이 삼키고 광채가 나고말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재판하실 때 그분께서 북쪽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셋째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 북박이 별이 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방향을 봐라 북박이 별이다.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것들 배운게 다 쓸모가 있는거죠 세상교육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자연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박이 별이다. 왜 북박이냐? 그 때는 몰랐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 이래서 북박이구나 다른 별들은 움직이는데 거건 움직이지 안 잼아요 남미에 가보면 별자리가 전부 다 달라요 별자리가 완전히 달라요 브라질 가가지고 밀림지역을

가가지고 인디안촌에서 하늘들을 보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떨어져 엄청나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당시 그곳은 긴 공기가 맑으니깐, 요즘엔 별들을 볼 수가 없죠 높은 산에 가지 않으면 별을 볼 수없죠 저희가 이전에 금요일 마다 철야예배가 끝나고 2시 정도 끝나고서 저 아주산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매주 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거기가서 방석 하나 갖고 가서 무릎꿇고 기도했는데 별이 5천 6천 많이 있는데 별이 떨어지는 것같았어요 야 그거 볼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거 하늘의 별 찬송가 40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말 실감이 나요 그게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요일 마다 밤을 푹박 세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쌓인거예요 다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내년부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새 장소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엎드려 졌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엎드려졌죠 다니엘도 요한도 엎드려졌죠 이사야도 엎드려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26절 28절 그쪽에 가보면 그들의 머리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그러면서 그 위에는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을 한 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영광과 함께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 이진 우리가 그 상황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실감을 할 수 없는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도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갈테니까 내가 너를 바위에 숨겨 놓을테니까 바위에 숨어서 내 뒷 모습만 봐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주님이 임할 때 광채는 여러분 햇빛이 말이죠 빛을 쳐다 볼 수있나요? 못보죠 쳐다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래요 주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그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냥 뭐 벌벌떨면서 완전히 엎드렸잖아요 정신이 없이 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하여 짓사이다 뭐 어찌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그 시편 50편처럼 광풍이 불며 막 불이 나오며 이럴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릴겁니다 아마 우리가 휴거될 때도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바울이 또 이 광경을 얘기 했죠 사도바울이 봤으니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8절 보겠습니다. 고통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 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주신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지 않을 것도 아셨어요 듣지 않을 것도 아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말씀 지금 전파해도 특별히 예수그리스의 재림에 대해 전파해도 천년왕국에 대해 전파해도 또 모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다 들을꺼라서 준게 아닙니다. 왜 주셨는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변명을 못하게 하려는거예요 어 나 예수님 몰랐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 몰랐습니다. 나는 천년왕국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 있죠 증거 증거가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재판장이 재판하는데 피고 청구하는데 검찰이 아무리 얘기 잘해도 안됩니다.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죽인게 확실한데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 받았죠 증거 재판주의라 거러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증거 한다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말씀을 증거 하는 곳입니다. 증거 한다는 것은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은 사람은 이미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하고 변명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말을 안 들었죠 정말 안 들었습니다. 반역한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것은 나중에 가서 어 그렇지 옛날에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었지 우리에게 말씀했지 그런데 우리가 왜 말을 안 들었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 그랬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 뭐 억지로 붙잡아 놓고 예수 믿게 하는게 하니고 또 억지로 당신 믿으라고 화 낼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파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 나중에 심판 받을 일이 무서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또 어떻게 증거 했는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다 똑같습니다. 어딜 봐도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불이 온데 불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토네이도말입니다. 이 회오리라는건 회오리 바람 이 토네이도가 말이죠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미국에 그 지금 미리미리 경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거죠 회오리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 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사야도 똑 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 되는 모든 구절은 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구절은 구름도 있고 광채도 나고 불이 있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분다. 하늘의 병거들이 움직일 때 토네이도가 분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6절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네 짐승이 네 생물이죠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그 성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럴 때 스랍천사들 스랍들이 거기서 같이 왔습니다. 스랍 그런데 그들은 날개가 여섯 개였습니다. 세 개 세 개 여섯 개 좌우에 세 개 세개 여섯 개 이긴 스랍입니다. 스랍은 어떤 역할을 하나면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니 내가 죽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스랍중에 하나가 와 가지고 그 화저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고 네가 깨끗케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스랍과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그룹은 날개가 네개입니다. 그런데 스랍은 날개가 여섯 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본 짐승들은 날개가 여섯 개를 가졌습니다. 날개가 여섯 개 그런데 여기 에스겔에 나오는 네 생물이나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은 날개가 여섯 개 세 개씩 여섯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날개 여섯 개 달린 존재들이 그룹인지 스랍인지 분명히 애길 안 했어요 근데 분명히 덮는 그룹 마귀가 덮는 그룹이라고 그러는걸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자들도 날개는 넷이지만 그룹이라는걸 알 수가 있죠 그룹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일 때 움직일 때는 스랍들과 나타나요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주님이 움직일 때 보좌가 움직일 때 그 호위하는 그 존재들 그것들이 바로 네 생물들인데 스랍인 것을 우리가 알 수있죠 참 이 광경을 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 나는 놋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발이 말이죠 곧은 발이래요 곧은 발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상상했어요 발은 볼 때 발레하는 사람들 발레하는 사람들은 곧은 발이죠 발가락으로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발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그랬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곧은 발 우리처럼 이렇게 걷는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걷는게 아니라 곧은 발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일자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 항상 바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있습니다. 바퀴가 나오죠 바퀴가 나오는데 자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여러분 날개가 네개데 전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카톨릭에서 만든거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라가는 걸로 되어 있죠 날개 가지고 여러분 이 날개 가지고 날아 가려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날개 가지고 얼마나 날라 가겠냐구요 엄청난 광년인 그러한 수 억 광년인 그런 공간을 이 날개로 퍼덕이면서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절대로 이 그룹은 날개로 날라가는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또 보좌를 가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움직여요 보통 움직일 때는 방향을 틀 때는 이걸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회전도 안 해요 회전도 안하고 가만히 가는 거예요 왜 동 서 남 북이 다 날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걸 뭐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것도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 되었지만 이게 사실 100프로 상상이 가지 않지만 아 이게 이런거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의 형상이 나와요 역대하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더라. 그 그룹들의 날개의 길이는 모두 이십 큐빗이니 한 10미터 되는 거죠 한 그룹의 한 날개가 오 큐빗으로 전의 벽에 닿았으며,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오 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다른 그룹의 한 날개도 오 큐빗으로 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오 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연결되었더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그룹은 네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있고 이 그룹들이 올라 가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도 몸을 틀지도 않아요 그냥 방향을 바뀌지는거예요 이걸 뭐 초 자연적인 어떤 지금 3차원의 자연계 땅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개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 자연적인 존재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엄청난 존재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본거죠 거기 사람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분명히 사람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우리 인자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환란 때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 봅니다. 23절에 미리 가보면 말이죠 우리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하여 끈게 퍼 있고 각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저쪽을 덮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날개를 펼치고 아 덮고 있지만은 그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와 상관없이 빠르게 날아간다. 날개는 날이기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초 자연적인 새 몸을 입고 올라 갈까 아닙니까? 그때 날개는 날이지 않을거죠 그러나 그 때는 날개가 없어도 날아 갈 수있는거예요 그룹이 날개가 있지만 날개로 날아가는게 아니라고 했어요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꼭 올라 갈겁니다. 우리가 상상이 가죠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 몸이고 썩지않는 몸이고 초자연적인 몸이고 빛의 몸입니다 여러분 빛이 날겁니다 여러분 아 빛의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휴거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겁 날게 없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굼뱀이가 매미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는 굼뱀이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매미 되는 그것을 아는 굼뱀이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정말 이걸 알 때 이것만큼 그러니까 이 좋은걸 아는 사람은 혼자 막 웃잖아요 미친사람들 히죽이죽 웃죠 너무 좋아서 어 자기 나름대로 뭔가 봐서 그래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 때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죠 뭐 돈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여 주느냐 이러죠 밥 먹여 주느냐 그 에스겔서28장에 잘 알지만 보면 반역하기 전에 마귀는 너는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랬죠 보좌를 덮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그런데 네가 반역했다 쫓아내겠다 그랬죠 불의 돌들 가운데 다니는 너를 쫓아 내겠다 원래 그룹은 다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타락해서 넷 밖에 없습시다.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는거죠 창세 전에 이미 그룹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그룹은 넷 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 하실 때 계획을 세웠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다섯 번째 그룹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일부터 10월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말씀을 받았고 또 주님의 재림 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 올 때 엄청난 광경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이 실상이 되게 도와 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거침들이 되지 않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하므로 아버지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한 증인들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증인들이 될 때 많은 핍박도 받겠지만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나중에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